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50:4-9
2026 년 8 월 16 일 오전 11 시

종의 노래

< 주여 도우소서 >

이사야에는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 50:4).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먼저 ‘학자의 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혀는 지식을 자랑하는 혀도 아니고, 사람을 논쟁으로 이기는 혀도 아닙니다.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혀’입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수많은 곤고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병든 사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우는 사람, 세리와 창기,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한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가 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요 4:6-7). 더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한낮을 피해 물을 길었습니다. 당시 우물가는 단순히 물만 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주고받는 마을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 제 6 시, 즉 정오 무렵 홀로 우물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복잡한 삶을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물을 길는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수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1.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예수님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긴 설교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부터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장벽을 넘어섰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회적 장벽도 넘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화할 가치가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곤고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사 50:5).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을 때 종은 들었고,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마가복음 1 장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한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은 사역지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베드로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막 1:37).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간다면 가버나움에 머무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성공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막 1:39). 예수님께서 한곳에 정착하여 정주 사역을 하기보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 순회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언제나 환영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종의 노래는 갑자기 훨씬 무거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겻세마네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 26:53).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열두 군단이 넘는 천군을 동원하실 수 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로마 제국을 정복하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하물며 수십 명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마 26:54).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2. 고난에 등을 맡기신 예수님

붙잡히신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 심문을 받으신 뒤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십자가형에 넘겨지셨습니다. 십자가형에 앞서 로마에서는 죄수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시행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마 27:26). 로마식 채찍에는 여러 가닥의 가죽끈이 사용되었으며, 일부에는 뿔조각이나 금속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은 단순히 채찍이 몸을 때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채찍질은 피부와 조직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출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모욕과 침 뱉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마 26:67). 가야바 앞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넘겨진 뒤에는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막 15:19). 그래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수치와 모욕 앞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주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사 50:7).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까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고, 로마 총독 앞에서는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왕으로 몰아갔습니다. 땅의 법정에서는 예수님께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들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8 절).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당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정죄해도,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해도, 군인들이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다시 선언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줌이 그들을 먹으리라”(9 절). 당장은 대적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묶여 있고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피고석에 서 있고 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있고 그들은 권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옷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줌은 옷을 하루아침에 삼켜 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갉아 먹습니다. 특히 당시의 중요한 의복 재료였던 양모 같은 동물성 섬유를 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생기고 마침내 옷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3.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

세상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할 당시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후 36 년경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은 구약시대의 이상과 달리 로마 정치권력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었고, 로마 당국의 개입으로 임명과 해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후 36 년경 사마리아인들을 강경하게 진압한 사건이 문제가 되자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는 빌라도에게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그 일을 해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유대 통치는 끝났습니다.

가야바도 물러났습니다. 빌라도도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리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던 날에는 그들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입고 있던 권력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낮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백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으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누가 참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라도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밝자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십자가로 이어졌지만,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낮아지심은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씌운 것은 가시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의 노래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순종한다고 언제나 편안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장은 손해를 보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